

# 「표면」에 대한 두가지 의식

- 대한상공회의소 회관과 고운빌딩을 대상으로 -

김 광 현  
서울시립대학 조교수

## 1. 머리에

여기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운빌딩(姜錫元)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金正澈)은 각각 84년 서울시 건축상 은상과 동상을 수상한 작품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 건축상은 서울시 도시미관의 조성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도시환경·창의성·기능·공공성·시공의 정밀도 등 5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심사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개의 건물은 작년에 서울시에 준공된 수많은 건물들 중에서도 도시미관과 주변환경과의 측면에서 공인된 우수건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건축물에 대한 진정한 비평행위는 먼저 작가 자신의 비평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물이란 결코 단편적인 인상만으로 이해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것이며, 건축주의 요구·경제성·사회제도상의 규제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작가의 건축적 의도와 그 결과는 누구보다도 작가 자신의 자세한 비평행위에 의해서 일차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제3자의 비평은 복잡한 설계의 프로세스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채 자신의 논리를 구성해 가려는 목적의식 때문에 작가의 의도를 간과해 버릴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두개의 오피스 빌딩은 반사유리를 전면(前面)의 주요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다. 두 건물은 각각 대규모의 공공건물과 소규모의 상업건물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점, 하나는 고도로 복잡한 기능을 규정된 볼륨으로 처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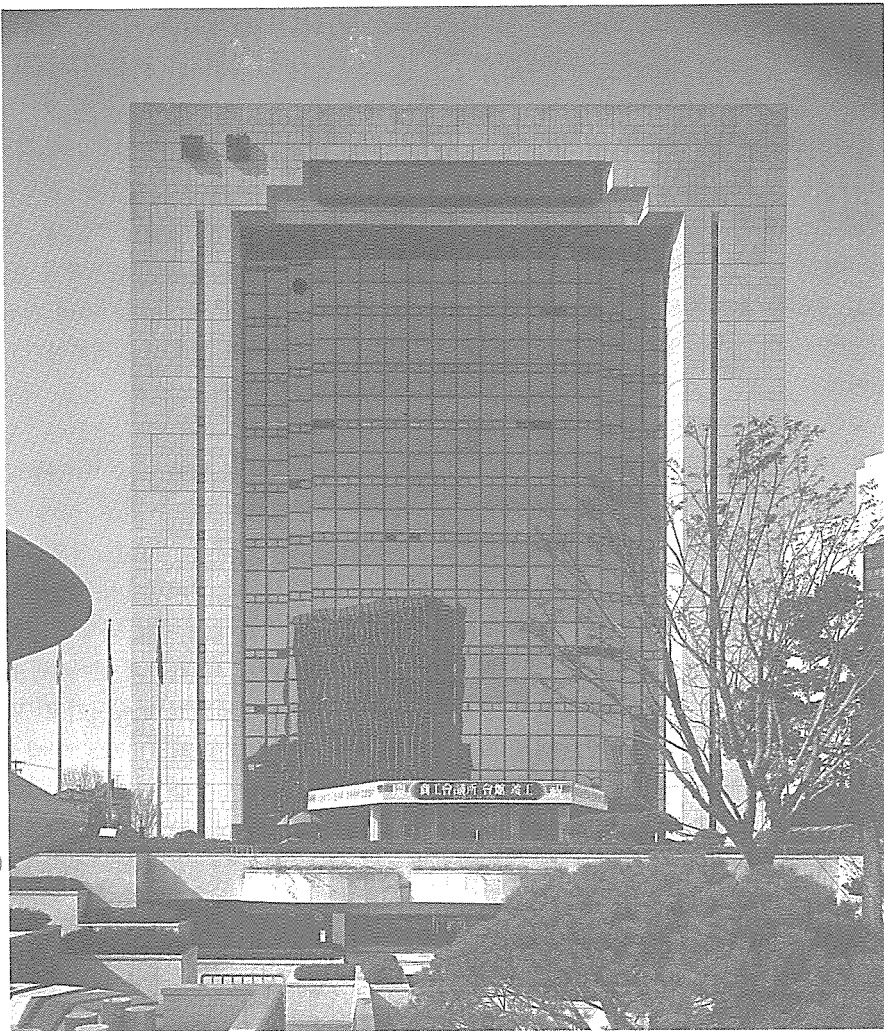
있는 데 반하여 다른 하나는 비교적 간단한 기능을 서비스 코어와 사무공간이라는 두개의 볼륨으로 분리시킨 후 이를 다시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피스 빌딩이 갖는 파사드 구성의 문제이다. 오피스 빌딩은 다른 건물형식과는 달리 가장 큰 바닥면적을 차지하면서 현대도시의 중심부를 성격짓는 도시의 얼굴이다. 대지의 성질과 설계조건이 갖는 철저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오피스 빌딩의 파사드는 명쾌한 기능적 해결을 그대로 외부에 연장시켜 표현되기가 쉽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두개의 오피스 건물에서는 파사드 디자인과 면(面)의 문제를 구상력(構想力)의 주제로 삼고 있다.

## 2. 본 론

먼저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전체의 볼륨이 화강석의 매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대비적으로 반사 유리가 정면의 파사드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커튼월을 주제로 하면서도 이를 화강암의 매스로 억제한다는 패턴은 이 건물에서만 아니라 정립건축에서 설계한 다른 공공적 건물의 트레이드마크(trademark)와 같이 반복되어 사용되어 온 것이다. 그 때 표적인 것으로서는 한국의환은행 본점의 영업장 건물로서 한국은행 울산지점, 한국은행 인천지점 등이 그 연상선에 속하며, 모서리가 원형 샤프트로 처리될 때는 MBC 여의도 스튜디오와 같이 변형되기도 한다.

볼륨의 좌우 그리고 상부를 규정하는



삼공회의소

화강암의 매스는 단지 기능적 이유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은행일 경우는 견실성과 품위를, 방송국일 때에는 반사유리의 대비를 통하여 매스콤의 진취적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도 역시 화강석과 반사유리에 각각 기념성과 진취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념성(monumentality)은 다시 정면의 대칭성에 의해 강조되고 있으

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면 유리의 좌우를 후퇴시키고 화강암벽면에 슬리트(slit)를 삽입하거나 건물의 상부에 고전적 모티브로 변경시키고 있다. 실제로 평면 주축(主軸)과 부축(副軸)이 각각 정면과 서측면을 좌우대칭으로 하면서 교차하고 있다. 이때 정면과 측면은 서로 다른 코드로 처리되어 정면은 기념성을 측면은 기능성을 표현하도록 처리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화강암에 의한 질량감

의 표현이 상징성의 의미를 설명대로 전달하고 있는가이다. H. Stubbins의 보스턴 연방은행의 좌우 샤프트나 K. Roche의 Knights of Columbus 본사의 원통형 샤프트 등에서 볼 수 있는 오피스 건물의 좌우 매스는 내력벽과 서비스 코어의 표현으로 코드화되어 있는 것이다. 표현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하더라도 주조(主調)는 黒川紀章의 福岡銀行나 Big-Box와 같은 中空의 입체이며, 이러한 테마는 반사유리가 파사드의 중앙을 메꿀 때 그것은 한국은행 인천지점과 일본적십자사본사과의 유사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근대주의에 monumentality를 부가하여 건물 전체를 하나의 기하학적 입체로 환원시킬 때 얻어지는 의사(擬似) 메거스트럭처(pseudomegast-structure)로서 먼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잘 다듬어진 화강석과 세련된 디테일, Schinkel의 모서리 강조와 같은 신고전주의(新古典主義)적 분위기는 표면적으로는 설계의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회사의 이미지(또는 corporate identity)로 설명되고 있으나, 이러한 표면적 분위기를 제거하는 이상 단순한 중공의 입체로 머물게 될 위험이 있다. 나아가 유사한 패턴을 공공적 성격의 건물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한 그 패턴이 작가의 전용어휘가 될 수는 있어도 특정 기업의 이미지를 상징하게 되는 어휘로는 통용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입면상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정면과 측면의 대비적 표현이다. 이러한 점은 작가가 고수하는 의견 즉 정면과 측면 등 각각의 면은 하나의 조형으로 통일될 필요는 없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남대문 광장으로

부터 각방향으로 노출된 양측면의 수직적인 세분화는 오히려 정면의 중량감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여겨진다. 즉 대각선상에서 지각되는 건물의 전체적인 볼륨에서는 정면 좌우의 화강암 벽면이 갖는 질량감이 측면의 수직적 요소와 정면·측면의 슬릿 창에서 비롯되는 시각적인 간섭 때문에 약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 결과 샤프트로 코드(code)화된 좌우의 벽면은 평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스(mass)가 아니라 질량감을 잃은 표면으로서 처리된 것으로 읽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좌우의 화강석 벽면이 정면에서는 양괴(量塊)구성의 요소로 보이면서도 대각선상의 시각에서는 면 구성의 요소로 읽혀지는 이유는 전적으로 정면은 기념성을 측면은 기능성을 분리시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면의 기념성을 양괴구성으로 처리한데 반하여 측면의 기능성은 변화없는 수직적인 창이 지배하는 선구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대각선상에서 지각되는 모서리 벽면의 모호한 성질 그것은 이러한 두 입면의 의미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가지 조형개념이 혼재하여 있다. 마치 이 건물의 내부가 억제된 외부와 달리 폭신적 요소나 고전적 모티브를 변형하여 자유로움을 표현하려 하듯이, 유리라는 경계면(境界面)을 Solid한 벽체로 포섭하려 하고 있다.

말할 나위도 없이 근대건축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기능으로 분화된 공간과 공간 사이를 구분하는 벽등의 구성 요소가 무게를 잃고 내외부를 구획하는 경계면으로 파악되었다는 점이다. 그 반면 역사적인 건축은 벽체가 공간을 구획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Solid한 물체로서의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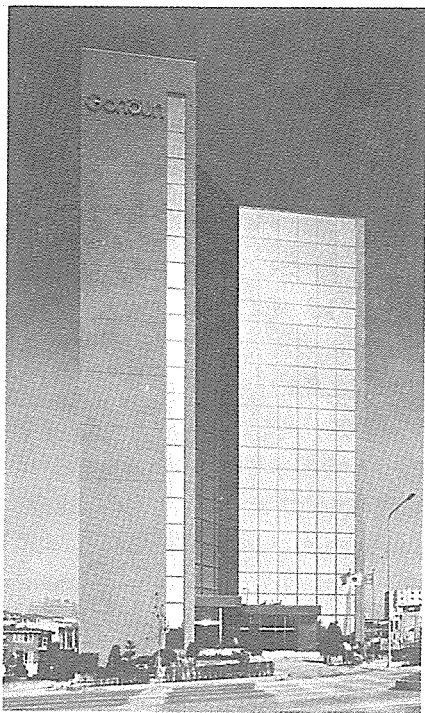
면을 구체적인 디자인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즉 추상화된 경계면과 구체적인 벽체와의 대립인 것이다. 따라서 이 건물의 내부만큼은 못되지만 외부의 국소적인 부분의 디테일이 석재로써 가능한 장식적 요소를 비교적 단순화시켜 전체적인 무미건조함을 만회하려는 노력 역시 현재 우리의 도시에서 부족한 물체적인 빈곤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립건축에서 설계된 몇개의 작품을 주목해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회관과 같이 Solid한 입체와 그와 대비되는 반사유리막이 주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연수원과 이화여대 중앙도서관은 같은 해에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막을 각각 타일과 화강암에 일치시킴으로써 하나는 유리라는 투명한 피막(皮膜)을 추상화된 경계면으로 동화시키면서도,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물체와 대비시키는 이질적인 수법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상공회의소의 정면과 측면에서 나타난 유리화강암의 조합은 각각 상징성을 요하는 이대 중앙도서관과 이보다는 기능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연수원의 수법을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도식적인 관계는 아마도 벽돌의 양괴적 구성을 위주로 한 정립의 교회건축들과 타일의 표피(表皮)로 중량감을 삭제하려는 삼윤빌딩이라는 두가지의 극단적인 표면 감각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정면과 측면에서 고려된 대립적인「표면」 그것은 상징과 기능이라는 서로 다른 기호내용을 위한 자신의 특유한 어

휘로 인정해 가던가 또는 하나의 형태수법으로 통일시켜 가던가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편 강남 신시가지의 소규모 사무소건물로 설계된 고운빌딩의 경우는 요소의 추상화를 의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의도적이라는 말은 정립건축의 은행 건물과도 같이 4개의 모서리에 계단 샤프트를 배치하고 전체적인 거친질감의 윤곽 속에 커튼 율을 삽입한 전주 덕진 문화회관이나 벽돌조로 입체의 중량감을 피한 가톨릭대학 신학부 기숙사 건물에 비교한다면, 고운빌딩의 표면은 작가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실 반사유리는 최근 도심부 사무소 건물에서 몇차례 시도된 적이 있었으나, 이 건물에 있어서는 유리면을 건물의 상단까지 연속시키고 반사유리의 좌우벽면을 최소한으로 억제시킴으로써 면의 연속성을 최대로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한편 유리면을 차단하는 사무공간의 벽면과 같은 폭을 두고 반복된 전망 엘리베이터의 반사유리는 정면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하여 면의 연속성을 확대시켜 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 분리된 서비스 코어와 사무공간의 볼륨을 대각선으로 잇는 반사유리의 피막은 건물의 시각적인 크기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사무공간의 폭이 정면 전체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그 결과 사무공간의 동측면은 무게를 잃은 카드보드(cardboard)와 같이 경계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반사유리의 사용은 구조의 규칙성을 보이는 Mies의 투명한 유리와는 달리 내를 숨기고 면의 연속성을 강조 함으로써



고운빌딩

정방형의 프레임과 함께 물질적인 성질을 배제한 추상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그 결과 건물의 의미부분(意味部分)을 소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왔던 것이다. 이 건물에 있어서도 재료란 공간을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재료라는 사물 그 자체로서 자립(自立)시킨다는 의도가 충분히 엿보인다. 가냘픈 부재를 통하여 크리스탈(crystal)과 같은 분위기와 예민한 조형에 관심을 두려는 작가의 의도는 다분히 기술의 표현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감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첨단의 공업재료를 주제로 하는 하이테크(High-Tech)의 감각은 대체로 실제의 건축과제에 대한 합리적·실용적인 해결, 균질공간과 단순성의 추구, 개념적인 작품구성의 원리, 건축주의 봉사자라

는 건축가의 역할과 같은 핵심과 일치되며, 추상화된 표면감각은 새로운「자극」과 관계되어진다.

실제로 작가는 이 건물의 중심개념을 「보편적인 건축」「정확한 건축」으로 설명한 바 있으나, 이때의「보편」이란 컨텍스트가 설정되어 있지 못한 신시가지의 도시환경에 평균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건축이라는 의미 이외에, 기능성·사용자의 요구·경제·재료의 선택과 같은 보편적인 요인을 최선으로 다룬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의 개념은 다소 완곡하게 표현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부분적인 가치(경제성·안전성·능률 등)의 집합을 전제로 한 것이며 결코 무엇을 만드는가 하는 주체적이며 전체적인 가치는 회피되어 있는 것이다. 건축의 가치와 그 표현을 측정가능한 문제의 해결(problem-solving)로 한정시키는 것은 기술적인 객관성에 의해 정당화되기 쉽다.

이에 반하여 공업적인 재료의 예민한 감각은 정면의 시점에 한정되어 있다. 건물의 좌우면에 대한 처리는 전면에 비하여 매스로서 남겨져 있으며, 특히 동측면의 개구부는 유리면에 접한 벽의 수직적인 감각과 크게 절감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운빌딩은 두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는 작가에게 있어 새롭게 여겨지고 있는 추상적인 면의 감각이 앞으로의 작업에 있어서 계속 중심적인 테마로 등장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서는 고운빌딩은 작가에게 과도기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추구가「보편」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일회적(一回的)인 해결방법이라면 그것은 추상적인 표면이 새로운 감각을 자극하는

도구로만 이해될 것이다. 반대로 추상적인 경계면이 「보편」의 개념으로 심화되어 갈 때 그것은 빛나는 표면의 High-Tech와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의문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정면과 측면과도 같이 고운빌딩의 샤프한 정면이 전체의 구성원리로서 통일되지 못한채 부분적으로 삼입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 3. 맺으며

이 두개의 수상작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두 건물은 연속적인 유리면을 통하여 균질한 그리고 크리스탈과 같은 표면감각을 추구하려는 점이다. 그러나 하나는 기능성과 상징성이라는 두개의 코드를 서로 다른 표면구성에 대입하고 있는데 반하여, 다른 하나는 보다 급진적으로 도입하고는 있으나 문제는 「보편」이라는 개념과 함께 어떤 의미까지 확장시켜 나갈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표면의 감각을 도시건축에 도입하려는 두 건물의 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과도기적인 상태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렴방향이 어느 쪽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은 수상된 작품으로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 두개의 건물은 적어도 파사드와 표면의 구성만을 문제로 삼는 한, 균질한 경계면의 재료로서 선택된 반사유리가 구체적인 벽체에 종속될 것인가 아니면 추상화된 경계면으로 변질되어 갈 것인가 하는 흥미로운 두개의 면의 의식을 앞으로 보여주는 분기점(分岐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